

# 건설노조 “분신 방조 보도는 허위 보도”

### 경찰청에 기자·데스크 고소·고발 사자명예훼손·비밀누설 혐의 등 “당신은 죽으려면 죽을 수 있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故) 양희동씨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가 양씨의 죽음을 목인·방조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기자·사회부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과 17일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양씨가 분신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인 A씨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바 있

다.

건설노조 측은 조선일보 측이 허위 보도로 양씨와 그의 유가족,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를) 승인한 데스크 담당자는 건설노조와 간부가 양씨의 죽음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부의 건폭 물이에 항의한 노동자가 기획 분신에 희생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원 장관 또한 해당 기사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하면서, 건설노조 간부의 극단 선택 중용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단언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간조선 측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동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열사정신 계승 건설노조 탄압 분쇄’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정범”이라고 전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18일 양씨가 남긴 유서 3장의 사진을 대조하면서, 유서들의 필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조·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

위원장은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누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며 “A씨는 양씨의 죽음을 막지 못해 뭍뭍했다”고 말했다.

유유나 기자



### 전남소방본부-여수소방,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준공식 개최

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최근 삼산면 거문리에서 도서지역 및 피난약자 시설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준공식을 개최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 담양소방, 등산객 대상 CPR 손수건 보급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봄철기간에 산행 중 심정지 환자에게 대처법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심폐소생술법이 그려진 손수건을 제작해 등산객에게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광양소방, 밤에도 보이는 ‘반딧불 골목길 소화기 합’ 지속설치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오늘 태인동청년회에서 밤에도 보이는 ‘반딧불 골목길 소화기 합’ 설치를 위한 사업비(5,000,000원)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보성경찰,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해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김성순 기자



### 무안경찰, 무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간담회

무안경찰(서장 김정원)에서는 최근 무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이성기 기자



### 완도해경, 바다의 날 맞아 ‘함께해’ 해안정화 캠페인 가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 명골파출소는 지난 19일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남 명골 갈산마을 해변가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함께해’ 해안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남교사 “행정업무 과다·열악한 처우·생활지도 어려움 호소”

### “신규·저경력 교사 다수 도서지역...맞춤형 교권 보호 정책 필요”

전남지역 교사들은 ‘행정업무 과다’ ‘열악한 처우’ ‘학생생활지도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남지역 유·초·중·고·특수교사 2353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치원교사 44.2%, 초등교사 38.5%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학교 24.6%, 고등학교 27.8%보다 높았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수업과 관계없는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연급 등 열악한 교사 처우 23.4%,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20.8% 순이다.

유치원과 초등교사는 감질과 교권침해, 학부모 민원 등을 선택한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2~3배에 높았다.

지역별로는 시와 읍 지역의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먼 지역과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를 선택한 비율이 많았다.

또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의 경우 감질과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학부모 민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에 대한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업 외 업무증가(27.1%), 학급당 학생수 증가(16.9%), 수업시수 증가(16.2%) 순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교원 우대방안’ 정책에 대해서는 ‘교사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정책이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4.0%로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는 “도서벽지의 경우 신규·저경력교사가 다수 배치되는 특성이 있어 맞춤형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업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청의 성과 중심 교육 정책과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실적에 대비한 공문서 생산, 각종 공모사업, 국회 감사 자료,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시행과 함께 농산어촌 작은학교 필수정원 확보 등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규탄 유석열 정권 퇴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 불편하다는 호소 제기

한글 표기 없이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영문으로만 표기된 각종 식당과 술집, 카페 등의 메뉴판 사진을 첨부하며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지 않냐”고 썼다. A씨는 “20~30대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주문이나 하겠냐”며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1인 1음료나 이용 (제한)시간 표기는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는데 웃기지도 않는다. 나라에서 한글 메뉴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 좀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게시물에 다수의 네티즌은 공감을 표했다. “최소한 한글이랑 영어 병기하면 모를까, 영어로만 쓰인 메뉴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영어로 쓰면 뭐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걸까”, “심지어 사진도 없어서 메뉴 설명을 부탁하면 진상 손님 취급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뉴시스

## “농번기 인력 더 달라” 따지는 이웃 살해한 알선업자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룬 이웃을 살해, 주차한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를 한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다툼 끝에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추정) 해남군 산이면 한 간척 농경지

에서 이웃 B(49)씨와 다투다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력 알선업자인 A씨는 B씨가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모자라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달라’고 따지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격렬해지자 A씨는 B씨를 실신시킨 뒤 농기구까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사흘 여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5분께 해남군 산이면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외상이 있고 비닐로 덮여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수사에 나섰으며, 용의자로 특정한 이웃인 A씨를 지난 19일 대전에서 검거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